주체사상국제토론회 문헌집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주체105(2016)년 9월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평양 주체 105(2016)년 9월 8일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JUCHE IDEA FOR
ANTI-IMPERIALISM, INDEPENDENCE AND SOLIDARITY
PYONGYANG, SEPT 8, JUCHE 105(2016)

차 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각하!

오늘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 돐에 즈음하여 귀국의 수도 평양에서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각하께 이 편지를 삼가 드립니다.

이번 국제토론회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체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주체의 조국에서 열린것으로 하여 더욱 큰 의의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승리자의 대회, 력사적인 대회라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침로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것이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천명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각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충직성을 페부로 느낄수 있었으며 조선의 드팀없는

자세와 신념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았습니다.

조선의 현실은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전세계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줍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의 가슴속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은**각하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과 신뢰심이 뜨겁게 맥박치고있습니다.

비범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세계자주화위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정력적인 령도에 고무된 전세계의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성과를 축하하여 경축모임과 토론회들을 가지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지난 5월에는 도꾜에서 일본 전국의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을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의 참가하에 기념보고회와 축하공연이, 7월에는 메히꼬에서 라틴아메리카지역의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의 강연회와 토론회가 의의있게 개최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평양에 모여 주체사상국제토론회를 성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존경하는 각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세계자주화위업은 오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보급함으로써 매개 나라의 자주화를 실현하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단결된 자주력량의 힘으로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겨오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전쟁과 폭력으로 방해하고있지만 그들의 어리석은 책동은 분쇄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조선에서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선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김정은**각하께서 건강하실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참가자일동

2016년 9월 8일 평양

개 회 사



가마꾸라 다까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

존경하는 대표여러분!

평화를 귀중히 여기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막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나는 이번 토론회의 개막연설을 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하는바입니다.

력사적인 이 토론회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대표인사들과 14 개 나라에서 온 16 개 대표단과 대표들, 그리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성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대표들, 토론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한 토론회준비위원회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대표들과 벗들!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최대의 숙망입니다.

자주와 평화, 진보와 번영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세기적념원이 빛나게 실현된 새 세계를 건설해나가는데서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들인 대표여러분들이 지니고있는 사명과 역할은 매우 책임적이고도 중요합니다.

우리모두는 이번 기회에 지난 시기에 이룩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

을 진지하게 나눔으로써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보다 적극화해나가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자주의 강국, 핵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쳐나가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은 우리모두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인류의 반제자주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시는 주체사상은 그 과학성과 정당성,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인류가 지향하는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는 고무적기치로 세기를 이어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반제자주와 평화의 성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열리게 된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의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상정된 의제를 성과적으로 토의함으로써 토론회가 21 세기 반제자주위업수행과 국제적련대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대표들과 벗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실한 협력을 기대하면서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개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하 연 설



대 형 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존경하는 대표여러분!

친애하는 벗들!

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되는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대표들을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국제토론회의 성과를 축원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성원하고있는 각 대륙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 진보적인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민은 당신들을 참다운 벗으로서, 세계자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의 믿음직한 전우로서 반가이 맞이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과 굳은 련대성의 뚜렷한 표시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친근한 벗들을 각 대륙에 가지고있는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들과의 친선단결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성과적개최는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전체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됩니다.

올해 5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사상리론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세계자주화위업의 완성을 위한 사상리론은 세계적범위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이였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는 전례없이 고조되고있습니다.

대표여러분!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세계진보적인민들과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반동세력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반동세력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주권침해행위를 짓부시고 자주권을 수호하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자주성에 대한 인류의 지향과 념원이 날을 따라 강렬해지고 세계 각곳에서 자주력량이 장성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시대의 선각자들인 당신들에게 중요한 력사적사명과 임무를 부여하고있습니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결조건입니다.

세계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모든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를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배격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

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입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침로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것이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당신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나는 이번 토론회가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충분히 교환하고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진지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 력사적인 회합으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국제토론회의 개최를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련대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쳐나가자

(보 고)



하리쉬 굽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자주성에 대한 인류의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시기에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주체의 나라, 선군의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열린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사상리론들을 밝혀주신것은 세계적범위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변혁이 일어나고 조선의 국제적지위가 날로 높아가는데 겁을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더 악랄해지고있는 속에서 주체사상신봉자들이 평양에 모여 토론회를 진행하는것은 조선인민에 대한 련대성의 표시이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련대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려는 진보적인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뚜렷한 과시로 됩니다.

나는 대회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안고 대륙과 대양을 넘어 이 자리에 모인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과 대표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울러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번 토론회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또 하나의 뜻깊은 사변으로 새겨지게 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제부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련대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쳐나가자》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1

현시기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반동세력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과 분쟁이 그칠사이없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조선반도를 비롯한 세계도처에 침략무력과 대량살륙무기들을 들이밀고 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으며 세계를 새로운 군비경쟁에 빠져들게 하고있습니다.

세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힘의 론리로 저들의 정치, 경제적리익을 실현해보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들에 의하여 현세계에는 평화와 안정이 깃들지 못하고있으며 인류의 생존과 발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습니다.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민주주의》와 《반테로전》, 《인권옹호》와 《세계화》의 간판밑에 감행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들의 자유로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미국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극소의 권력자들과 부유한자들이 절대다수의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는 반동적민주주의이며 하나의 초대국이 제멋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침략적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이 감행하는 《반테로전》은 반미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테로행위이며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책동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와 《세계화》의 미명하에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말살하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의 위험성을 똑똑히 보고 그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자주위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현시기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입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의 횡포한 지배와 간섭책동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제국주의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있습니다.

자주와 평화에 대한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있습니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굳게 뭉쳐 제국주의반동세력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주권침해행위를 짓부시고 자주권을 수호하며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

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2

현시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지도적지침은 다름아닌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은각하께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과 **김정일**령도자의 혁명사상을 결부시켜 정식화하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는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는 제국주의를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그리고 끝까지 투쟁할것을 요구합니다. 주체사상은 반미투쟁에 주되는 힘을 돌릴데 대한 문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반제자주위업의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주고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선군사상에 의하여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습니다.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으로서 혁명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들에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해답을 주고있습니다.

진리는 실천속에서 그 의의가 더욱 부각되는 법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위대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은 반제투쟁의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가 밝혀준 진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조선인민은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있었으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우뚝 일떠세울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에 한차례의 세계대전과 맞먹는 제국주의와의 사생결단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고 조국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내걸고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비약, 대혁신을 창조하여 나라의 존엄과 위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고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력사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이 모든 성과들은 다름아닌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위대한 사상은 인류공동의 재부입니다.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대한 사상이 진보적인류의 절대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시대사조로 되는것은 력사의 필연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류사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거대한 폭과 속도로 파급되여 세계적변혁을 일으키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려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것을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

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앞길을 찾고있으며 그 기치밑에 자주와 독립,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습니다.

참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전세계적범위에서 온갖 지배와 예속을 청산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의 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향도하는 불멸의 기치입니다.

3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련대련합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며 시대의 력사적과제입니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세계입니다.

나라와 민족들의 발전과 번영,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진보적인류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입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기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입니다.

미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파괴자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의 주타격대상입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군사적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침략적인 군사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인권옹호》와 《세계화》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적인《원조》에 그 어떤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말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야 합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드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불살라버려야 하며 《정의》의 간판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의 새 세계를 건설해나가는데서 련대련합을 강화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련대련합은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반제반미전선에 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굳게 결속될수록 제국주의자들의 멸망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련대하며 련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 나라들사이에 불신과 알륵을 조장, 격화시키고 나라와 지역들의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반제자주와 련대를 위한 투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 및 구현활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권위있는 학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속에서 미증유의 견인력으로 자주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상리론과 로선들을 깊이 학습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와 지역의

현실을 분석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은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세계자주화실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푸는데 복종시키며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 매개 지역의 구체적인 력사적조건과 특성, 문화적전통에 맞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의 대를 튼튼히 이어나가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 사업을 참신하게 그리고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신봉자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리론적연구를 심화시키고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제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 ※ ※

존경하는 대표여러분!

친애하는 벗들!

우리모두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굳게 단결하여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청산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전진하는 우리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폐 회 사

존경하는 대표여러분!

친애하는 벗들!



하리쉬 굽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성대하게 열린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주와 평화를 지키려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에 의의깊은 리정표로 아로새겨지게 될 이번 토론회는 참가자들모두의 드높은 열정과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나는 이번 토론회가 상정된 의제들에 대한 토의를 원만히 진행한데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회의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신 대표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과 벗들!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반동세력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현 국제정세로 보아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지닌 사명과 임무는 참으로 무겁고도 중대합니다.

진보적인류의 자주위업을 거세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은 의연히 계속될것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적지 않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일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들고나가는 우리의 전진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것이며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

을것입니다.

우리의 위업은 숭고하고 정의로우며 위대합니다.

력사는 자유와 평화, 인류의 진보를 위한 숭고한 위업에 한몸바친 사람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회의를 마치고 제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토론회의 숭고한 리념을 깊이 간직하고 21 세기 자주위업실현에 자기의 지혜와 힘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에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준 준비위원회와 서기국성원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자주위업을 다그치고 련대련합을 실현하는데서 력사적인 계기로 될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으면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의 폐막을 선언합니다.

사회주의조선은 반제자주의 중심, 세계평화의 수호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보고에서 배우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김정은**위원장께서 국가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경사스러운 해에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마꾸라 다까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

제국주의부활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아베정권에 항거하여 우리 주체사상연구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는 도꾜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학습회(5월 21일)에 주최자의 한사람으로 참가한것을 비롯하여 일본 전국각지에서 로동당대회보고학습회를 개최하고 우리들의 사상확립, 운동의 전진을 위한 지침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저자신도 도꾜에서 진행된 보고회에 참가하였으며 일조우호련대 사이다마현민회의 학습회(5월 28일), 련속강좌《사람중심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전 8회)에서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보고를 학습하고 우리들자신의 과제와 지침을 확립하는 사업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보고사상을 일본에서의 자주확립,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에 구현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1. 총결기간의 고난극복－사회주의강국의 기초확립으로부터 배울 내용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붕괴로 인하여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사회주의체제해체책동이 심화되는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이 사회주의를 견지할수 있은 근원은 어디에 있었는가?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의 좌절, 사회주의세계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질을 드러내고 핵무기선제타격에 의한 군사적침공, 온갖 봉쇄와 압력, 제재를 통하여 사회주의조선의 해체책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개회사에서 가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쳐들고 전쟁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제국주의에 의한 사회주의해체책동속에서 중국, 웰남은 사회주의정권을 견지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속에서 조선은 바로《단독의 힘》=《자력》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고 전쟁보다 더한 고난을 극복했을뿐아니라 사회주의강국의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력사의 기적창조라고 말할수 있는데 거기에는 현실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김정일**총비서의 사상리론활동입니다.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개척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 여기에 절대적확신을 지니고계신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되였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시였습니다.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이지 사회주의 그자체의 붕괴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주체형성이 불충분했습니다. 특히 생산력이 높으면 로동자, 근로인민들의 사회주의의식도 저절로 형성된다고 본데로부터 사회주의사상의 목적의식적확립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

는데 붕괴의 원인이 있었다고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밝히시였습니다.

김정일총비서의 사상리론활동은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1992 년),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1993 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4 년)를 통하여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둘째로, 조선식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주체로 보고 주체로서의 의식확립과 주체로서의 실력형성 및 발휘를 기본으로 하였다는것입니다. 령도자와 지도정당(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키우는데 모든 힘을 넣었습니다.

로동자, 근로인민대중이야말로 모든것의 주인이며 특히 정치의 주인이라는것, 그리고 그들자신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며 당과 정권은 이를 보장하고 높이는 역할을 하는것이 조선식사회주의입니다.

조선에서는 로동자, 근로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습니다. 로동자, 근로자들은 사회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로동과 사업에 대한 자기의 몫을 책임지면서 생산과 경영의 전체적조직과 조정능력 즉 관리를 맡아할 능력을 형성하고 발휘해야 한다는것이 밝혀졌으며 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인간사회의 생존과 발전의 담당자가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가 건설되고있습니다. 이보다 우월한 사회는 없습니다.

셋째로, **김정일**총비서의 현명한 사상리론활동과 이민위천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로동당의 령도에 의하여 령도자와 당,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형성되고 확립되였다는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적통일이 형성된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진리성에 대하여서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자각적으로 자기들의 사상으로 여긴다는데 주체사상의 진리성이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의 발전은 인민대중이 주인이라는 사상의식을 가지는

데 따라 좌우됩니다.

조선식 사회주의의 기본 위력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의한 공고한 일심단결에 있습니다.

당 제7차대회보고의 두번째체계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에서 첫번째과업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제시되였으며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밝힌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최고강령,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이것을 인민대중 한사람한사람이 자기들의 사상으로, 지침으로 신념화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있습니다.

2. 주체사상의 진리성

이전에 사람의 본질에 대한 해명방법은 여러가지였지만 그것은 특정한 사회관계로 규제된 혹은 특정한 지위(권력)가 있는 사람의 본질을 밝힌것이였습니다. 지배욕, 권력욕을 사람의 본성으로 본것은 인민대중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통치자들을 기본으로 하여 파악한것이며 사람이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리기적인 리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진다고 본것은 금권위주의 자본주의에서 규정되고 외곡된 사람에 대한 해명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간으로 살아가는 근거에 기초하여 사람을 고찰하지 못한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고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인간사회의 생존과 발전의 근거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에 기초하여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성을 해명하였다는데 주체사상의 진리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본이 현실적으로 로동자, 근로자들을 지배하며 리기적인 리익을 얻고있습니다. 로동자, 근로자들은 사회의 주인으

로 되지 못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사회의 생존과 발전은 로동자, 근로자들이 맡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우리들도 주체사상을 자기의 사상으로 확립할 근거가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자기 사상으로 여기고 그를 구현하는것, 로동자, 근로자들이 자본의 지배를 변화시켜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것, 이것이 주체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들의 당면한 과업입니다.

3. 세계의 자주화, 평화확립을 위하여

(1)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본질에 대한 인식

일제식민지통치와 로동력, 자원의 수탈과 략탈을 반대하여 민족공동의 힘으로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조선, 조선반도를 분렬시키고 아시아에 대한 패권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하여 체제붕괴를 노린 미제와 맞서 그 의도를 산산쪼각낸 조선, 조선인민처럼 제국주의의 횡포한 략탈적본질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인민은 없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의 사업총화보고의 네번째체계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에서 《랭전종식후 극도로 오만해진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강권과 전횡을 부리면서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고 주권국가들을 전복하기 위한 침략과 모략책동을 감행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특히 반제최전선에서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고있는 조선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은 집중되고있습니다. 미제를 비롯한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은 사회주의는 력사에서 이미 말살되고 사멸되였으며 이미 존재하지 말아야할 사회체제라는 독단으로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말살책동에 광분하였습니다.

당 제 7 차대회보고에는 미국식민주주의와 미국이 감행하는 《반테로

전》, 《세계화》의 반동적본질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져있습니다.

《미국이 떠드는 미국식민주주의는 극소수의 권력자들과 부유한자들이 절대다수의 무권리하고 빈곤한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는 반동적민주주의이며 하나의 초대국이 제멋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침략적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이 감행하는 〈반테로전〉은 반미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테로행위이며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책동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의 기만적인 간판을 들고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말살하고있습니다》, 《〈세계화〉는 미국식가치관으로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전략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자기의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미제의 척후병으로서 그 전략을 추종하면서 다시 제국주의통치자로 되려는 야망에 사로잡힌 일본 아베정권의 반동적본질을 인식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2) 사회주의조선은 세계 반제자주화의 성새입니다.

당대회보고에는 사회주의는 반제자주의 핵심력량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라고 밝혀져있습니다. 사회주의 즉 인민대중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사회주의야말로 금권과 폭력이 지배하는 제국주의에 맞서 그를 때려부실수 있는 근본력량입니다. 세계의 사회주의나라들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련대성을 강화하며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사회주의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횡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사회주의위업을 지지성원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반대하여 투쟁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조선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세계적인 자주력량과의 련대를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3) 사회주의야말로 평화를 바라고있으며 평화를 이룩합니다.

당대회보고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당의 투쟁목표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밝혀져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은 의식성에 의하여 담보된 자주성,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보는데 이러한 사람의 사회적본질은 평화적인 인간관계 즉 서로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공동협력속에서 발현되고 발전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사회적본질을 현실로 꽃피우고 발전시키는 사회주의는 평화적인간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며 평화적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확립합니다. 평화는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이며 평화적사회관계속에서 사회주의위업은 이룩됩니다. 사회의 존재와 발전의 담당자인 로동자, 근로인민은 각자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하고 련대하는 과정에 진실한 평화적인간관계에 의하여 인간사회의 존재와 발전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리기적욕구를 실현하려고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전쟁속에서는 인간사회가 해체됩니다.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타당한 문제입니다.

당대회보고에 지적되여있는것처럼 미국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항시적으로 핵전쟁위험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은 세계의 평화의 수호자, 평화실현의 주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의 핵무기개발과 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당대회보고에는 우리는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

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밝혀져있습니다.

조선의 핵개발과 보유는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사수하기 위한것이다, 제국주의나라들이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약속하며 실행한다면 조선은 핵을 선제사용하지 않을것이며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련대운동의 힘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책동을 무력화시켜 비핵화를 실현해나가겠다는것이 명확히 밝혀져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조선이 진심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바라고있다는 것과 제국주의침략세력을 궁지에 몰아넣고 무력화시키는것이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길이라는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들자신의 과업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우리 일본**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보고를 학습하고 이번 국제토론회의 성과를 받아들여 일본에서 집요하게 떠들고 있는 조선위협론을 짓부시는 운동을 강화하며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운동과 힘있게 련대해나갈것을 결의다지면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보고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도록 하여주는 위대한 문헌이다



더모트 하드슨,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존경하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 학자선생님들!

이번 뜻깊은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조선인민이 자력자강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여기 주체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자리를 같이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조선로동당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으며 이에 대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함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세계반동들이 제재와 군사연습, 심리전을 비롯한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인민조선을 질식시키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2중3중의 발악을 하던 시기에 소집된것으로 하여 승리자의 대회로 되였습니다. 대회의 소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위원장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 이 위대한 당만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앞에서도 이러한 대회를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와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당 제7차대회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여러분들과 우리의 견해를 나누고저 합니다.

보고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소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에 대하여 총화하시였습니다. 모든 분야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기본성과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들이 다른 길을 걷고 혁명을 배신할 때에 사회주의길만을 굳건히 견지한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과 선군이 있었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았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대응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압력과 도전을 단호히 제압분쇄하였으며 우리 주변에서 어지럽게 불어오는 부르죠아자유화바람과 <개혁>, <개방>바람도 선군총대의 기상으로 날려버리며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였습니다.

랭전종식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적압력과 전횡에 기가 눌리워 원칙을 저버리고 타협과 굴종의 길로 나아가고있을 때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반제자주적립장과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여온 조선로동당의 투쟁경험은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전의 시대인 오늘 반제자주, 사회주의원칙은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오직 강력한 총대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고수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개혁》, 《개방》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길을 따라 전진하여왔다는데 대한 커다란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위원장께 경의를 표시하시였으며 그분들을 조선혁명의 영원한 수령

들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가장 격동적이며 현명한 강령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들을 관철하시겠다는것을 맹세하시였습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로선을 계속 견지할것이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할것이라는것,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부터의 그 어떤 탈선도 없을것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전세계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다그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총로선은 인민정권을 강화함으로써 적극 수행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며 인민생활을 발전시킬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입니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영국에 있는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이 철저한 반제, 반자본주의, 반세계화사상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지지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의 분쇄와 계획경제의 고수와 함께 3 대혁명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

동당 제 7 차대회에서 《개혁》, 《개방》정책이 채택될것이라고 보던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 내부의 원쑤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타격을 가하시였습니다.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인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절실한 문제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량면술책과 기만적인 <원조>에 그 어떤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혁명을 위한 위대한 반제로선입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외국착취자들을 자기 나라들에서 몰아내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립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범을 따라배우는것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이 호소를 받들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우리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 6월 23일 제국주의적인 유럽동맹으로부터의 탈퇴를 요구하는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가장 중요한 문헌입니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보고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자주적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백과전서적인 강령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나아갈 길을 밝혀줌으로써 제국주의와 싸워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도록 하여주는 위대한 문헌입니다.

조선로동당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위원장 만세!

주체사상의 빛나는 봉화는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의 등대



나완쑤렌 볼드,
몽골주체연구쎈터 위원장

존경하는 여러분!

먼저 올해 5 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한데 대하여 몽골주체연구쎈터지휘성원들, 모든 회원, 지지자들을 대표하여 또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되는 뜨거운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의 이 력사적결정은 조선로동당과 군대, 영웅적근로인민이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로 굳게 뭉쳐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발책동과 모략전에 된타격을 안기는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몽골주체연구조직들의 기본목적은 젊은 세대, 청년대학생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와 문화, 자주, 자립을 위하여 투쟁한 력사적행로와 위대한 수령님들의 략력을 소개한 작품들을 선전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리해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몽골주체연구조직들의 학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에 대한 로작들을 몽골어로 번역하여 많은 대중에게 선전하고 연구자들의 참고서로 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우에서 언급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특히는 몽골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의 사심없는 방조로 국제토론

회, 강연회와 여러 기념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의 날, 전시회 등 여러 행사들을 조직진행하면서 수많은 대학생, 학생들을 참가시킬수 있었습니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몽골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우리 기관들과의 깊은 련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국제연구소의 활동과 새로운 정보들을 보장해주고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합니다.

몽골주체연구쎈터와 아시아주체연구소의 공동사업이 정상화되여온데 대하여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주체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계시는 벗들과 존경하는 고프트선생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몽골주체연구조직들의 연구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여 우리 과학자, 연구사들을 가르치고 학위학직과 변론사업을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재 몽골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과학박사칭호를 수여받은 3명의 박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의 국제정치, 사회경제, 사상의 붕괴의 불안한 시기에 살고있습니다.

경제의 심각한 공황으로 인하여 국가와 민족간의 전쟁, 분쟁, 마찰에 많은 나라들이 말려들고 수백만 죄없는 인민들, 어린이들, 녀인들이 피해당하고있습니다.

이 모든 기아와 가난, 분쟁의 후과로 수백만이 조국을 버리고 목숨걸고 이국땅으로 피난가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은 더 잘 알고있으며 더우기 무엇때문에 왜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였는가를 알고있습니다.

이들의 뒤에는 오직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려는 제국주의련합, 다시말하여 미국과 그의 손발이 된자들이 있습니다.

부르죠아언론은 거짓으로 일관된 보도들을 세계 각 곳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들의 리익에 맞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나 민족이든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면에서 제제를 가하고 몰락하도록 하여 나라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며 저들의 앞잡이들에게 돈을 쓸어넣어 전쟁의 불을 지피고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고 묻고싶습니다.

우리는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서로서로에게서 경험을 배우고 정보를 교환하며 사업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더 열심히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자기 나라에 정확하게, 가식이 없이 선전하는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영웅적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 조선로동당이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는 위업에서 젊으신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승리를 가져오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의 빛나는 봉화는 세계 나라들의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의 등대가 되며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적인 사회를 일떠세우는 정신적활력소로 되고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병, 근로인민에게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선군정치는 지구상의 비범한 정치



쏭코리 바로띠,
선군정치연구네팔문학연단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서 토론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저는 우선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각하께 저의 충심으로 되는 뜨거운 축하와 최대의 축원을 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커다란 발전과 진보, 번영을 이룩하며 급속히 비약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가 있어 짧은 기간에 이처럼 급속한 발전과 진보, 번영을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는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세계 혁명적인 국가들을 압살하려고 책동하는속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인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시하신 정치방식입니다.

오늘 선군정치는 세계 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선군정치는 군사를 중시하고 군대를 앞세웁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과 국가는 선군정치하에서 군대에 의거

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의 행복을 지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군대를 믿음직한 조국의 수호자, 주력군으로 간주하고있습니다.

반동적인 통치계급은 군대를 저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군대는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위력한 계급투쟁의 전초병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위대한 선군정치방식을 정립하시였습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주석의 군사중시사상에 기초하고있습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석의 사상을 선군정치로 발전시키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참다운 국가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수령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뿐아니라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강군으로 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과 군사중시사상,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 그분들의 위업을 계승발전시켜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떠나서 이 모든것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여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믿음직한 정치, 군사, 경제토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백승의 길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입니다.

저는 군사중시사상과 선군정치를 창시하시고 실천에 구현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군사중시사상과 선군정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국가들이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동맹세력들의 압력과 전횡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고 따라배워야 할 위대한 사상이고 정치방식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업자가 없고 인민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쓰고 살 걱정이 없이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받고있는 유일한 나라라는것에 대하여 매우 긍지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자신이 그 혜택을 받는것처럼 기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빈부의 차이뿐아니라 공해와 세금도 없습니다.

조선인민이 누리는 혜택과 행복, 그들을 지켜주는 선군정치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발전을 추동한 선군정치의 생활력에 매혹되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몇년전에 나는 네팔에서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을 조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연단을 운영관리하는데 많은 난관과 장애가 있었지만 나는 이 위대한 사상의 신봉자로서 이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네팔의 진보적인민들과 문화인들속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해설선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의 기본활동원칙은 네팔의 진보적인민들과 문화인들에게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과 정당성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주며 선군정치의 기치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하고있는 놀라운 변혁에 대하여 적극 선전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연단은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유일한 사회주의국가를 중상하려고 책동하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선전의 기만적성

격을 파헤치고 네팔인민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주려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나는 조선의 현실과 위대한 주체사상과 군사중시사상,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하여 이전의 나의 사업에서 나타난 낡은 사업작풍을 버리고 우리 연단을 진보적인 문화인들을 모두 망라하는 연단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단을 통해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깊은 리해와 새로운 친선협조관계가 확대되리라고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고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비젠데르 자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부위원장

반제자주와 련대성에 관한 이 력사적인토론회에서 토론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선인민은 처음에는 일본군국주의를 그 다음에는 미제국주의를 쳐물리치고 자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커다란 희생을 치르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조선반도의 불명예스럽고 인위적인 분렬은 평화의 영구적인 침해를 초래하였으며 또 국제적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준 비극의 시작이였습니다.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의 분렬과 팔레스티나에서의 유태국가의 수립은 국제사회에서의 분쟁과 폭력, 불일치를 초래한 근원이였습니다.

국제테로는 제국주의에 의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의 발현입니다. 자기 인민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결정할 권리는 한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적인 권리입니다.

그러한 권리에 대한 그 어떤 나라의 그 어떤 간섭도 국제법에 대한 침해로 됩니다.

주체철학은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발전을 위한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하고있습니다.

나는 나자신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조선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정치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자체로 개척하고 사회주의를 자주적으로 건설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것인가?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인권이 유린된다고 비난받고있습니다. 사회주의조선에서 인권을 심히 유린하고있다는 거짓소문이 널리 류포되고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을 설교하는자들에게 묻건대 지난 30 년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련합세력이 사회주의조선에 경제적봉쇄와 제재를 가해오면서도 인권을 지켜준다고 하는것은 무슨 말인가?

이러한 경제적인 제재가 민족의 정당한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것을 모른단 말인가? 그것은 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들의 기초적인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빼앗으려 한다는것을 과연 모른단 말인가? 이것이 사회주의조선의 일반공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란 말인가? 그자들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누구도 조선과 조선인민에 대한 경제적제재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자연부원을 개발하기를 원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정치는 자기들을 추구하지 않는 정권들을 없애버리려 하고있습니다.

나지불라흐의 정권을 반대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탈리반을 조작하였으며 탈리반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것이란 알카에다를 조작하여 테로의 촉수를 뻗치고 다른 테로기구들을 산생시킨것입니다. 전세계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였는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색출한다는 구실밑에 싸담 후쎄인을 제거하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쥐새끼 한마리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미국은 수리아의 아싸드대통령이 자주적인 사회주의정치를 따르면서 수리아인민들의 권리를 유린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를 반대하는 깜빠니아를 벌리기 시작하였으며 아싸드대통령을 추방하기 위하여 어중이떠중이들을 무장시켰습니다.

미국제무장장비로 무장한 이자들은 무고한 주민들과 기자들을 죽이

고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테로공격을 감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이것을 **김정은**각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사회주의조선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에 선차적인 힘을 돌린 조선로동당의 정책적견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미제에 의하여 야수적만행과 살인, 방화, 강간, 고문을 당하였으며 결과 그들은 미국이 무기만능론밖에 줴칠줄 모른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비난만 할 때가 아니라 사회주의조선을 겨냥하여 남조선에 설치한 미군의 군사기지사용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테로행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는 **김정은**령도자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날로 악화되는 제국주의위협에 당당히 맞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려는 사회주의조선인민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이 존엄있고 자존심이 강한 생활을 누리며 조선의 문화와 력사 그리고 생활방식에 맞게 발전할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인류의 자주와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사상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뿐아니라 정의와 평화, 공정성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서 자력자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친구들과 동지들, **김정은**각하의 령도아래 약동하고 평화롭고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를 세우며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자존심을 가지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싸우는 영용한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부터의 지지를 보내자는것을 맹세합시다.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께와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나의 형제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가 이 토론회에서 당신들과 의견을 나눌수 있게 기회를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제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자



드미뜨리 꼬스쩬꼬,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세계 사회주의체계가 붕괴된 때로부터 25 년동안의 력사발전기간은 제국주의의 침략성이 강화되고 자주정치를 실시하고 워싱톤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나라들의 내정에 대한 제국주의의 간섭이 우심해진것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최근년간 우리는 소말리아,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수리아에 대한 제국주의침략의 증견자로 되였습니다.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독립국가들에 대한 압력이 심해지고 《색갈혁명》이라는 명칭으로 합법적정부들을 반대하는 음모가 꾸며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즉 한때 번영하던 나라들이 파괴붕괴된것이며 공민전쟁과 인적위기, 자기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 수천의 피난민들이 생겨난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반제투쟁을 광범히 벌리고 반제투사들의 국제전선을 폭넓게 전개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십년동안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반제투쟁의 기수로, 튼튼한 보루로 되여왔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하신 사업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반동세

력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현시기 국제정세의 특징은 지배권확보를 위한 렬강들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대결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 반동세력이 점차 쇠퇴몰락하고있는것입니다.》

전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자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자주정치를 실현하는데로 지향하고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인 우리들의 리상은 모든 선의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인민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고 지배와 예속, 침략과 내정간섭이 없는 세계,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매개 나라 인민과 민족의 평등과 자주성존중이 실현된 세계를 건설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관계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반제기치를 높이 들고 워싱톤의 지배에 복종시키려는 시도들을 결정적으로 배격하여야 합니다.

미국지배자들은 《민주주의옹호》와 《반국제테로전》이라는 말로 저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라크와 수리아, 리비아에서처럼 이전에 안정되고 안전하였던 나라들의 내정에 미국이 간섭한 후 그 나라들의 령토는 지역불안정의 원천으로, 테로분자들의 원종기지로 전락되였습니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인민을 위한 인민자신의 정치가 되기를 그만둔지 오랩니다. 이것은 몇몇의 매우 부유한 족속들과 다국적독점체들을 위한 정치를 실시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리익에 모순되며 근로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치를 실시하고있는 반동적인 국가정치방식입니다.

오늘날 반제투쟁의 기본방향은 평화를 위하고 대결과 새로운 긴장의 발원지를 만들어내는것을 반대하며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자주권에 대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침해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선의의 인간들은 제국주의침략의 도구로 되는 침략적인 군사쁠럭들의 해체를

위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반제투쟁의 중요한 방향의 하나는 자주정치를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는데 걸림돌로 되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보호하는것입니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합법적인 국가지도자들을 지키는 사업을 방관시하면 나라가 독립을 잃고 미국의 반식민지로 전락되며 붕괴까지 초래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민들이 자기 지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는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침략뿐아니라 내정간섭시도들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있습니다.

현단계에서 제국주의와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들사이 대결의 특징은 제국주의자들이 국제법적규범들과 독립국가들의 국가법을 란폭하게 무시하고 사실들을 직접 위조날조하는 방법을 리용하는것입니다. 실례로 이라크에 대중학살무기가 있다고 주장한것을 들수 있습니다. 력사는 저들의 적대국들에 대중학살무기나 인권유린 또는 전쟁준비의 유무를 놓고 꾸며지는 제국주의의 기만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에게 적대되는 나라들을 비속화하여 대중의 인식에 주입시키기 위한 목적에 방대한 자금과 강력한 선전수단들을 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사실 전혀 무근거한 거짓말, 허위일뿐입니다.

미국은 《국제헌병》으로 자처하면서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지도자들을 반대하는 반란도 꺼리낌없이 꾸미고있으며 반란자양성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훈련시켜 교형리와 살인귀로 만들고있으며 가장 악랄한 반동세력과도 직접적동맹관계를 맺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수법과 행위에 있어서 저들이 반대하여 싸우고있다는 《국제테로분자》들과 조금도 다를바 없습니다.

나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절대로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적들이 하는 약속과 평화적제스츄어를 믿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싶습니다. 쏘련이 무너진 기본원인의 하나는 수정주의자들이 다년간

실시한 정책 즉 일명 완화정책, 《제국주의와의 공존》정책이며 제국주의가 벌리는 선전에 대한 참을성정책에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와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조할수 있다는것은 반드시 깨버려야 할 위험한 환상입니다. 바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침략정책으로 하여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유린되고 국부분쟁들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앞에 나서고있는 과제의 하나는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활동하고있는 매개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선전과의 비타협적투쟁의 분위기, 제국주의가 류포시키고있는 소문과 억측들을 폭로하는 분위기를 세우는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하신 사업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세계 진보적나라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소동을 짓부셔버리며 사상최대의 피난민문제를 산생시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범죄적정체와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를 만천하에 발가놓아야 합니다.》

세계인민들은 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대중보도수단들이 리용하고있는 겝벨스식날조방법에 언제나 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더러운 날조자료에 기초하여 국제기구들, 무엇보다도 유엔이 자주적인민들의 권리를 유린하고 그들의 정상적인 발전에 지장을 주는 차별적인 결정들을 채택한다는것도 방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을 위한 국제적인 운동에 참가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도록 하기 위하여 더 굳게 단결하자는것을 호소합니다.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미제의 약속에 환상을 가지지 말고 미국식기준에 기초한 세계화흐름에 말려들지 말며 자기 나라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반제자주적원칙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연구소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것이다

세계 주체사상연구소조의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당신들과 함께 있게 된 기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주고 회의를 조직해준데 대하여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지지해주고 있는 마드리드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동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겔 비반꼬 쌀리나스,
에스빠냐
마드리드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저는 마드리드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소조를 대표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체 104(2015)년 태양절부터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모두 30 회에 달하는 협의회를 조직하였는데 이 협의회들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들에 대한 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요명절들과 중요일들에 대한 축하에 대하여 론의하였습니다.

마지막 협의회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되는 자료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소조의 모든 성원들은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열것인가에 대하여서와 앞으로의 전망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토의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선에서 가져온 많은 자료가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실례자료들도 직접 우리가 써넣습니다.

현재 연구소조에는 8 명의 성원들이 있으며 국가적범위에서 우리는 엘 빠이스 바스끄에 연구소조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발렌씨아에 또 내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협의회보고서를 출판하는 망도 가지고있으며 사회망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한발자국씩 전진하고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조는 젊은 팀이고 지칠줄 모르는 정력으로 사업하고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업과 투쟁은 주체사상옹호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습니다. 가까운 앞날에 우리는 더욱더 사업에서 분발하여 모든 소조들을 크게 발전시킬것이며 더 많은 지지자들을 쟁취하고 국가적범위에서 회의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물론 마드리드대사관과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의 긴밀한 련계를 계속 유지할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오늘날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계승발전되고있는 독창적인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의 진수를 선전하는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겠습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리념인 사회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으로부터 사회생활에서 맺게 되는 구체적인 인간관계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대하여, 집단주의가 사람의 본성적요구라는데 대하여 밝혀줍니다.

이번 회의의 토의중점은 반제자주와 련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그에 대하여 명백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고 존엄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상징입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오늘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배격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성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인민들의 의식성을 교묘하게 말살하려는 제국주의파쑈분자들의 지배주의적 봉쇄책동이 벌어지고있는한 **김정은**동지의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주체사상은 우리모두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길을 밝혀주고있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보급의 모든 활동들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연구에 모를 박고 주체사상의 진수를 구체적으로 리해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들은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에게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것입니다.

우리는 소조성원들의 기자회견과 로작들에 대한 토론, 자료전시회와 사진전시회를 조직하여 모든 소조성원들이 주체사상의 진수와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의 투쟁,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더 잘 알게 하도록 할것입니다.

티위터와 페이스북크는 주체사상의 선전과 보급에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에스빠냐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의 뷸레찐들을 많이 출판할것이고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자료들도 많이 내려고 합니다.

조선인민은 모든 혁명가들이 따라배워야 하는 혁명가의 전형들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사상과 지향을 완벽하게 표현한 **김정일**동지의 교시를 인용하는것으로 토론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할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앞에는 현정세에 대하여 옳바른 견해를 가지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며 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는 스리랑카를 자주적인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있는가



더블유. 에이. 두민두와르다네,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리사

친애하는 의장선생!

저명한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

스리랑카주체사상연구회 책임자로서 스리랑카를 대표하여 연설하게 된것을 기쁨으로, 영예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스리랑카에 대하여서와 최근 몇년동안 스리랑카의 정치, 경제, 사회정세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리랑카는 인디아에서 떨어져나온 열대 섬나라입니다. 대다수가 신할라불교도들이고 소수가 타밀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입니다.

스리랑카는 1505년부터 독립을 쟁취한 1948년까지 유럽침략자들의 통치를, 마지막에는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장구한 기간 나라의 애국적인 지도자들과 지식인들, 진보적인민들과 조직들은 외래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해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1948년에 스리랑카는 영련방의 독립성원국으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였습니다.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인민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민족적인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스리랑카인민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정치적독립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지만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경제적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 사이 자유선거제가 도입되였습니다. 통일민족당이 이끄는 첫 정부가 세워졌는데 이것 역시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2009 년에 결단성있는 지도자 마힌다 라야팍쎄대통령이 정부군으로 군사인도주의 사명계획을 단행하였으며 시민들은 테로분자들을 족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리익에 저촉되는것이였습니다. 세계력사를 보면 자주적인 나라가 자기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면 미국과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은 압력을 가하고 그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협정을 채택하든가 그 어떤 일에 끌어들여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주적인 나라들을 불안정하게 하고 저들의 은페된 목적과 전략을 실현하였습니다.

테로집단을 청산한 후 마힌다 라야팍쎄대통령은 주요발전계획을 실현하여 몇개의 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테로분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정부청사와 살림집, 도로와 관련하부시설들이 재건되고 자유가 실현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주도의 자본주의나라들은 《정권교체》를 꾀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민족지도자와 그의 정부를 전복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노르웨이, 카나다를 비롯한 유럽나라들과 민족반역자들과 비정부조직들, 반대파지도자들이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동참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십년동안 나라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있던 스리랑카의 주요좌익정당인 인민해방전선이 미제와 손을 잡고 민주주의적인 집권정부전복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과 자본주의나라들은 국내에 있는 저들의 지지자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정부를 없애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신문, 방송, 텔레비죤을 비롯한 대중공보수단들을 리용하여 정부를 반대하는 거짓보도를 하였습

니다. 페이스북크라는 인터네트매체는 새 세대들에게 력사와 세계정치, 부패현상에 대하여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고 그들을 타락시키는데 리용되고있습니다. 이 매체를 통하여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새 정치》라는 구호를 제시하는것으로 시민들과 특히 새 세대들을 혼란시켰습니다. 2015 년드디여 그들은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교체》를 실현하였습니다.

지금 미국과 자본주의나라들은 비민주주의적인 현정부에 줄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주고있습니다. 나라의 헌법을 수정하고 저들의 리익과 인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서에 따라 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의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파괴하고있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적인 반대파지도자들과 진보적인민들과 정부관리들이 괴뢰정부와 미국주도의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조직화되고있습니다.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민족적투쟁은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지만 신식민주의와 불공평한 자본주의적경제제도의 후과로 경제문제가 부상되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들과 부유한 나라들사이의 자본주의적시장관계가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해방하시고 미제를 쳐부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발전시키신 사실을 잘 알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들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십년간 자주성의 원칙과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집단적자력갱생, 완전한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견지한것은 찬양할만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나라의 현정세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 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사

회주의위업을 완수할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습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당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벌리고있는 헌신적인 투쟁에 대하여 언급하시였습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김일성**각하께서 서거하신 후 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군사적압력과 전쟁도발책동, 경제봉쇄와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피해로 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난관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실현한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최대의 공적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로동당의 변함없는 대외정책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목표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오랜 기간 조선의 력사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조선의 수령들과 인민들, 그리고 군대가 제국주의세력들로부터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민은 사회정치적자주성과 경제적자립을 실현하게 되였으며 조선은 더욱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스리랑카는 난관에 직면하였습니다. 스리랑카는 미제의 후원을 받는 괴뢰들에 의하여 산생된 수많은 문제들에 부닥치고있습니다. 우리가 주체적견지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리랑카주체사상연구회 성원들은 스리랑카의 력사와 민족적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스리랑카인민이 이룩한 성과를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조선에서의 자력갱생, 사회발전과 결합시켜 새 세대들에게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하여 해설해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각하 만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만세!

나라의 발전에서 청년들의 역할과 주체사상



위핀 굽따,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많은 사람들은 청년들에 대한 교육과 건강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면 청년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가 빨리 발전할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오늘 나는 주체사상과 청년들이 어떻게 민족의 전반적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모두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근본원리로 하는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긴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 특히 발명가, 창조자, 건설자이며 미래의 선도자들인 청년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과업, 원칙과 방도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줍니다. 청년들은 능력이 있고 건강이 담보되며 결심이 서고 생활의 선택을 하게 될 때 미래를 개척할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옳바른 사상을 심어주고 옳은 정책과 투자를 실현할 때에만 청년들이 사회경제적발전을 추동하고 인구 1 인당 수입을 늘이도록 할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최대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들이 일할 나이의 청년들에게 직업을 얻을수 있는 기회를 비롯하여 수입가능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김정은**각하의 청년중시사상과 청년운동을 주체혁명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게 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 9 차대회의 역할에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나는 또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어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조선로동당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고싶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대중전취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신하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왔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갈것입니다.

청년들은 미래의 선도자들일뿐아니라 오늘의 동행자들입니다. 청년들은 변혁과 진보의 담당자들입니다. 청년들은 민족발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청년들의 공헌이 절실히 필요한것입니다. 청년들의 열망과 지향, 결단성과 넘치는 힘은 민족을 파괴할수도 있고 건설할수도 있습니다. 옳바른 사상과 지도만이 청년들이 민족발전의 전렬에 서게 할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열정과 꿈,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 피끓는 정열을 옳게 조직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급속한 민족발전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각하께 경의를 드리며 고상한 정신과 풍모를 소유한 시대의 선구자들로 자라난 조선청년들에게 나의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조선인민과 청년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인류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할것이며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입니다. 나는 짧막한 시 한구절을 읊는것으로 나의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청년은 불이다
청년은 앞으로 전진한다
불꽃이 되여 불길을 일으키고
빛이 되여 누리를 비치는
너는 청년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사상



마니크 라마,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 위원장

존경하는 대표선생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행복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였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을 제일로 하는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확증된 위대한 사상입니다.

현시기 주체사상을 맑스주의의 유물변증법에 기초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있는데 주체사상은 맑스주의의 틀안에서 해석할수 없는 독창적인 혁명사상입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변혁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입니다.

주체사상이야말로 조선혁명실천에서 위대한 변혁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구현한 조선의 경

험은 우리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됩니다.

네팔-조선친선 만세!

감사합니다.

조선은 인민의 안녕과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가장 리상적인 사회



마르씰레띠 안드레아,
이딸리아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체사상의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게 된것을 긍지로 생각합니다.

조선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굴함없이 사회주의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고있습니다.

반대로 이딸리아에서는 공산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심한 곤난을 겪고있습니다.

이딸리아공산당은 오늘날 정부의 수상인 마떼오 렌지밀에 똘리에띠와 베를린그에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공산당이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그릇된 당으로 변화되였습니다.

이딸리아민주당은 내부세력의 권위쟁탈권으로 약화되였습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던 당들까지도 산산이 흩어지고 남은 사람들은 원래의 3%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딸리아도 1976년도에는 국민의 35%가 공산주의를 지지하였으며 이딸리아공산당은 서방유럽에서 제일 큰 공산당이였습니다.

그러나 1984년 비서인 베를린그에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써 첫 이딸리아당의 운명은 길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딸리아에도 주체사상이 필요한것입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단결되고 인민의 존경을 받는 수령, 당의 자주권과 권위를 지키고 인민들의 생명을 책임져주는 군대를 가진 조선로동

당의 위력이 바로 이딸리아에도 필요한것입니다.

7~8 년동안 계속되는 경제위기는 또한 이딸리아사회의 불평등을 가져오고있습니다.

한개 단위의 책임자의 로임은 로동자의 로임보다 11 배나 더 높으며 이딸리아 남쪽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은 북쪽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20%이하의 로임을 받습니다.

무직업자들은 점점 늘어나고있으며 그들중 젊은 청년들은 37%입니다.

이딸리아는 이제는 자기의 본성까지도 잃고있습니다.

오늘날 이딸리아에서 조국이라는 단어는 낡은것으로, 값이 없는 단어로 되였습니다.

2 차세계대전때 조선인민혁명군이 일본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것처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이딸리아의 전사들도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딸리아는 몇년전부터 북아프리카와 동방나라들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식민주의적전쟁을 피하여 수많은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어오는것을 막지 못하고있습니다.

국경을 보위하는 문제가 옳바로 해결되지 못하고 경찰들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때문에 이딸리아는 안전치 못한 나라로 되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이딸리아사람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져다주고있습니다.

조선은 자기 나라 인민들의 운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리상적인 인민의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서방나라들의 정확치 못한 자료들을 보면 다 조선의 현실을 반대하는것입니다.

이 모든것을 바로 잡자면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소원도 바로 그것입니다.

조국에 돌아가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히

보여줄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의 력사와 전통, 문화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길로 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심화발전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조선과 같이 말입니다.

이딸리아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

알하싼 맴맨 무함마드,

나이제리아**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은 완벽한 대중적지반을 가지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공고한 대중적지반에 기초하여 창건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점에서 해방된 직후인 같은 해 10월 10일에 선포되였지만 당창건준비사업은 근 20년전부터 시작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1912-1994)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ㄷ》)을 결성하시였습니다. 《ㅌ.ㄷ》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로 되였습니다.

당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꿰뚫어보신 주석께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은 당을 창건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당을 창건하고 기층조직들을 내오기전에 당의 강령과 규칙을 먼저 선포하는것이 기존공식으로 되여있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공식을 다른 각도에서 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이 공식대로 하면 물에 뜬 기름방울처럼 대중과 동떨어진 당을 창건하게 된다고 생각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은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자기의 기층당조직들을 건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중앙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당의 특성에 맞게 조선로동당 마크에는 마치와 낫, 붓이 새겨져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있습니다.

창건된 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은 대중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습니다. 조선로동당은 토지개혁, 남녀평등권,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조선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실현시켜주었으며 인민적인 정책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누리면서 전체 조선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행복의 귀중함과 그를 보장해주는 조선로동당의 귀중함에 대하여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토지개혁도 1945 년 8 월 일제의 식민지멍에로부터 나라가 해방된 후 조선인민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던 시기에 조선로동당이 내놓은 정책입니다.

새 사회건설을 위한 전반적국가사업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방방곡곡의 수많은 농촌마을들을 찾으시여 농민들을 만나시고 농촌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토지개혁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제와 민족반역자, 지주들이 소유하였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 1946 년 3 월 5 일은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는 조선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된 날로 기록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1950-1953)후 조선로동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1960 년대 초에 조선로동당은 날로 강화되는 미국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다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된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숙망을 실현시켜주려고 국력이 강하고 끝

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령도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철칙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지난 수십년동안 조선로동당은 높은 수준의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과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인민들에게 식량을 눅은 가격으로 공급하였으며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한 살림집을 무상으로 보장해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에서 유일한 세금없는 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 치료받을 걱정, 자식들을 공부시킬 걱정, 세금걱정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이러한 정책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과 제국주의자들의 극심한 경제제재와 봉쇄로 인하여 경제적난관과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를 겪던 지난 1990 년대에도 중단없이 실시되였습니다.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조선은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강한 미국주도의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는 력사적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수많은 조선인민군군인들이 불뿜는 적의 화점을 가슴으로 막았고 《나를 조선로동당원이라고 불러달라!》고 웨치면서 수류탄묶음을 안고 적땅크를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로동당에 대한 조선인민의 깊은 신뢰의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이 동시에 붕괴된 지난 세기의 마지막 년대에 조선은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철저히 책임졌다는 좋은 실례로 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공세와 련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시련과 난관속에서 조선에서는 서방의 예측과는 달리 정부전복이나 사회적불안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대로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조선인민들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체사상은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에 대하여 강조하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께서 풍부화시키신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불변의 지침으로 삼았기에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정치를 실시할수 있었습니다.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것은 **김일성**주석의 좌우명이였습니다. 이 좌우명이 오늘 조선로동당의 지론으로 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과 자주적권리를 옹호하고 보장하여주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는것은 조선로동당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 언제나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에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무료교육과 무상치료, 세금페지제도를 실행하는데서 그리고 아무리 나라의 경제형편이 곤난해도 로선과 정책에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담는 일을 조금도 중단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당에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조선의 경험을 배워야 합니다.

사나운 폭풍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박고 든든히 서있는 나무처럼 공

고한 대중적지반을 가지고있는 조선로동당은 그 어떤 세계적정치풍파속에서도 절대로 동요하지 않을것입니다.